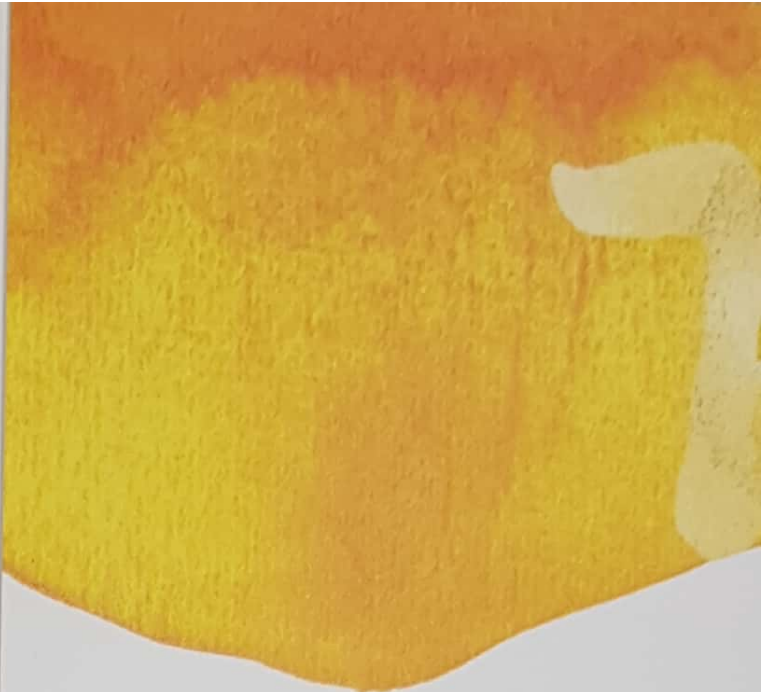


詞 | Sensibilities
감성

사랑과 소통의 미학, 전통술

배영호 지음



펴낸 곳 | 배상면주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전화 | 02-574-3281
팩스 | 02-574-5112

2006년 11월 27일 초판 인쇄
2006년 12월 1일 초판 발행

편집 및 디자인 | 601비상



사랑과 소통의 미학 전통술

하나. 김씨부인 양주시

시루 09

누룩틀
겹오가리
화향입주방
감주
용수
술 거르는 날
소주교리
술독
술독 굴리기

둘. 술이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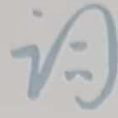
주기 31

주안상
손 어여쁜 김씨부인
달을 마셔요
울적한 날
단오풍경
술도가 인심
주막에서
내외주가
모주집
머슴관례

셋. 화해와 소통의 노래

부모님께 올리는 권주가 55

선생님께 올리는 권주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권주가
선배에게 드리는 권주가
후배에게 권하는 권주가
처음 뵈는 이에게 드리는 권주가
미운 이에게 드리는 권주가
서먹했던 벗에게 드리는 권주가
적장에게 드리는 권주가
떠나가는 정인에게 드리는 권주가



—
둘 . 술이 있는 풍경
—

母酒집

동지선달 입김 허영게 서리는 신 새벽은
“모주 끓었소오” 외치는 모주집 할멈의
반가운 소리가 깨우는 법입니다.
약주탁주 알뜰히 걸러 낸 술지게미에
남은 곡긴들 있으련마는 누룩찌끼 밀기울에 물을 타서 끓여내면,
허기진 뱃속이나 되어야 용케 알아먹는 안타까운 술기운에다,
그리운 술 냄새 아직도 피어나는 모주가 되어 집니다..
오들오들 떨며 모여 섰던 말없는 날품팔이들
모주 한 잔 비지국 한 술에 입들이 풀려
그제서야 오늘 팔 품팔이 걱정들을 서로 나눕니다.
할멈은 말이 없고 새벽은 밝아오고,
비지술 모주술은 어느새 허전하게 비어만 갑니다.

모주란 술지게미(술찌꺼기)에 푸성귀를 넣고 끓여낸 서민들의 음식이다.

